

KIA 마운드 기대주 한승혁

# “직구로 정면승부 선발에 이름 꼭겠습니다”

日 오키나와 캠프 제구력 높이기 구슬땀

변화구 등 상승세...마무리 활용도 '기대'

KIA 타이거즈 한승혁이 오키나와 캠프에서 치열한 싸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승혁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다른 야수 '한승혁' 자신이다. 한승혁은 선배 한기주가 비워 놓은 최고 강속구 투수의 자리를 차지한 남다른 기대주다. 지난해에는 선발로 변신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프로 데뷔 4년 만에 활짝 날개를 펼쳤지만 화려한 비행은 오래 가지 못했다. 급격한 제구 난조 등에 무너진 한승혁은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으며 기대감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1군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한승혁에게는 시즌이 너무 짧았다. 한승혁은 “지난 시즌은 남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 선발로 승리의 기쁨도 맛봤고 마운드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쉽게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만큼 동기 부여도 되고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선발로 나서 쌓은 경험은 달콤했지만

그만큼 썼다. 쓴맛만 본 것은 아니다. 화려한 순간 뒤 쓴 실패의 시간을 통해 한승혁의 야구 키가 한 뼘 더 자랐다. 한승혁은 “처음에는 겁없이 내 공을 던졌던 것 같다. 많은 이닝을 책임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서 생각이 많아졌다. 한 타자 한 타자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너무 앞서서 생각을 했다. 잘해야겠다는 욕심으로 마운드에 서니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며 “답을 찾았을 때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다. 2군에서 차분하게 돌아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고 준비를 했다”고 언급했다. 더 단단해진 마음과 준비는 결과로 드러났다. 시즌 막바지 한승혁은 차분하게 자신의 공을 던지며 그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한승혁은 “중반에 좋지 못했지만 좋은 감으로 시즌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다.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캠프를 보내고 있다. 내 장점이자 단점은 직구다. 스피드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구가 가장 큰

속제인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변화구도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제구가 더해진다면 한승혁은 KIA 마운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1·2군에서 쌓은 선발 경험이 있고, 짧은 이닝을 강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도 있다. KIA 벤치도 이번 캠프에서 한승혁이 상승세를 보이며 중요한 자리를 소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승혁은 그동안 사용했던 66번 대신 12번과 3학년 때 달았던 41번을 자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선택했다. 씩씩하게 야구를 하던 예전의 모습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 당당하게 마운드 쪽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 한승혁은 “야구는 상대와의 싸움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경쟁자와 주변 상황을 의식했지만 지금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이겨내고 내 부족한 부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연히 투수입장에서는 선발에 욕심이 난다. 선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이다. 어려운 팀 상황에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책임감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4대륙 피겨요정들 한국 온다



나주출신 박소연

### 12~15일 피겨선수권...박소연 등 한국 6명 참가

올 시즌 비(非)유럽 최고의 피겨스케이팅을 가리는 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2~15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2015년 4대륙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발표했다. 4대륙 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의 선수들이 출전해 승자를 가리는 일종의 대륙 선수권대회다. 2002년 전주, 2005년 강릉, 2008년 고양, 2010년 전주에서 이미 네 차례 4대륙

선수권대회를 치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한번 대회를 유치했다. 이번 대회에는 여자 싱글 19명, 남자 싱글 27명, 페어 10개조 20명, 아이스댄스 14개조 28명 등 15개국에서 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한국에서도 평창 기대주들이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여자 싱글의 기대주 박소연(신목고)·김해진(과천고)·채송주(화정고), 남자 싱글의 이준형(수리고)·김진서(갑천고)·변세중(화정고)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아이스댄스에서도 레베카 김-키릴 미노프가 출전할 예정이다. 경쟁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여자 싱글에서는 그레이시 골드(미국), 혼코 리카(일본), 가브리엘 데일먼(캐나다), 리쯔원(중국) 등이 출전하고 남자 싱글에서는 소치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데니스 텐(카자흐스탄)과 무라 다카히토 등이 나선다. 아이스댄스에서도 올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인 케이틀린 위버-앤드류 포제(캐나다)와 준우승자 메디슨 척-에반 베이츠(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장애인 동계체전 9일 팡파르

12일 까지 평창 일원...17개 시·도 754명 참가 역대 최대

장애인 선수들이 펼치는 설원과 빙상의 제전이 막을 올린다.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대회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과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선수 376명과 임원 및 관계자 378명 등 총 754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크로스컨트리스키 2명,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6개 종목 경기가 치러진다. 패럴림픽 종목이기도 한 바이애슬론은 지난 대회 시범종목에 이어 올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소치 대회 알파인스키 결선에서 4위에 올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인 양재림(서울)을 비롯해 크로스컨트리스키 서보라미(강원)와 지난 대회 출전시켜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6개 종목 경기가 치러진다. 패럴림픽 종목이기도 한 바이애슬론은 지난 대회 시범종목에 이어 올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캐디 빙 입을 대가 달라”

PGA 캐디들 집단 소송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캐디들이 PGA 투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4일 “PGA 투어 캐디 82명이 PGA 투어를 상대로 스폰서 로고가 새겨진 캐디 빙을 착용하는 대가를 달라는 집단 소송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캐디들은 소장에서 “PGA 투어가 1년에 스폰서로부터 5000만 달러(약 550억원) 이상을 받고 있지만 캐디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며 캐디 빙을 입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PGA 투어가 캐디들의 건강 보험, 퇴직 연금 제도 등을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PGA 투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